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86호 1판 (음력 6월 25일)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2014 광주·전남 청소년축제 … 청춘, 꿈을 향한 도약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광주일보 주최로 열린 '제3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댄스 경연에 참가한 광산구청소년수련관 '헤게모니'팀이 독특한 안무로 끼를 발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7·14·2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재보선 최대 관심 … 순천·곡성 이정현 후보 '나홀로 선거운동' 따라가보니 …

지역발전 공약 제시에 '박수' 지역구도 타파 호소에 '악수'

"새누리 후보라 아쉽다" 반응도

"제가 당선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끌어와 획기적인 순천·곡성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누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 누가 더 시민들에게 겸손하고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인지 비교해주십시요" "제가 당선되면 지긋지긋한 지역구도가 타파되는 물꼬가 트이게 될 것입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후 처음 맞는 휴일인 20일 순천 웃장. 한여름 더위 속에 빨간 조끼를 입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나홀로 선거운동' 중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순천 시민은 무소속 후보를 2번이나 찍고 통합진보당 후보를 뽑을 만큼 눈감고 2번 찍지는 않는 위대한 시민들"이라면서 "어느 지역도 따를 수 없는 시민의식을 믿고 제가 순천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전경련 산하 대기업 회장단 및 실무책임자급 사장단 면담을 통해 전남 동부권 산단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지역의 숙원 사업인 순천대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세를 듣는 상인과 시민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박수를 치는 시민 속에서는 "이번에는 (이정현 후보를) 국회의원 시켜주자"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등의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유세 후 자전거를 타다가 끌고 가다가를 반복하며 이 후보는 또다른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상당수 시민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고 손을 흔들어 주며 반색을 했다. 또 악수를 먼저 청하는 경우도 많았고 음료수나 물을 주며 격려하는 시민도 많았다.

시민과 상인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이모(48)씨는 "1년 10개월짜린데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지"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50대의 한 식당 주인은 "힘 있을 때 써먹어야지, 순천에 이런 기회가 10년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경상도보다 먼저 동서화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 "광주 서구민들이 이정현을 낙선시키고 후회했다더라" "이정현을 밀어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탕평의 바람을 순천에서부터 일으키자" "지역발전을 위해 눈 한번 딱 감고 이정현을 찍자"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다.

순천에는 실제로 이 같은 분위기가 공무원과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게 현지인들의 전언이다.

물론 반대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이정현이어도 새누리당 지지는 꺼려진다" "영남 인사 편중 등 박근혜 정권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새누리당 후보를 찍느냐"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 또 이 후보에게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표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앞으로도 묵묵히 나홀로 선거운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당의 도움도, 지지자들의 대대적 동원도 없지만, 지역발전과 지역감정 해소의 진정성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한다는 생각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독거노인 무료개안 수술을 위한 자전거 투어
8월 4일(월)~5일(화) 062)605-1128
광신대학교

광주 신도심 상공 통과 비행 항로 재조정 해야

고층건물 많아 대형사고 우려

최근 광주에서 헬기 추락 등 비행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심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 항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0일 광주·전남지역 헬기 조종사 등에 따르면 헬기 조종사들이 서울을 가려면 광주공항에서 출발, 하남지구～수완지구(너비 5～10㎞)·비아·광산 IC를 거치는 루트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들 항로 바로 밑 지상에는 예전과 달리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단지와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와 건물 등이 촘촘히 들어서 있어 자칫 대형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는 '비행항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성덕중과 부영2차 206동 인근 토담에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추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났고, 지난해 8월 28일엔 공군 소속 T-50기가 서구 서창동 인근 농지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T-50은 현재도 초고층 아파트 등이 밀집한 상무지구 등 상공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항로 주변 시민들은 매일 항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불안해하고있다. 특히 이 일대에는 20층 아파트만 10곳 이상이어서 충돌사고 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광주 도심통과 항로

또한 초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등 지형지물이 자주 바뀌는 수완지구와 하남지구·비아의 경우 시계비행하는 헬기 항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도심을 직접 비행해야 하는 헬기의 경우 그만큼 사고 대비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선 가급적 인구밀집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등을 피해 항로를 재조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쌀 시장 내년 전면 개방

농민단체 반발 … 전남도, 쌀 산업 기반 유지 대책 촉구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가 개방에 앞서 선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일부 농민단체, 정치인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쌀 개방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쌀 시장개방(관세화) 입장과 관련 쌀 산업 발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 유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5년 주기로 곡물자급률 목표 공표, 곡물자급률 목표를 2020년 32%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모작에 대한 밭 농업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2017년까지 7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목표가격 결정 요건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하고 5년 주기에서 매년 설정하도록 쌀 소득 보전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